2011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오시는 길 한국프레스센터



● 문의처
한국인구학회 총무이사 조영태 (서울대교수)
youngtae@snu.ac.kr Tel : 02-880-2718

[2012년 한국인구학회 토론회 시리즈 제1회]



2011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일시 | 2012년 1월 19일(14:00~17: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20층 프레스클럽)
주관 | 한국인구학회
주최 | 통계청

통계청

1976 한국인구학회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INVITATION

모시는 글

통계청이 최근의 인구변화를 반영한 2011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얼마 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30년 5천2백만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6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결과가 2018년 약 5천만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크게 다른 결과입니다. 2006년과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의 차이는 앞으로 출산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외국인의 유입도 증가하는데 반해 고령인구의 사망률은 줄어들어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장래인구추계결과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각 부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한국인구학회는 이처럼 새롭게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앞으로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 관련 민간 및 공공 기관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과 기관 그리고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인구학회는 앞으로 각 부문별 심층토론회도 기획하고 있사오니 여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19일

한국인구학회장 이 승 욱

대 회 일 정

●일 정

2:00 ~ 2:30	등 록
2:30 ~ 2:50	개회식 (사회 : 김중백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인구학회 학술이사)
	개회사 : 이승욱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인구학회장)
	환영사 : 우기종 (통계청장)
	축 사 :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2:50 ~ 3:10	기조발표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3:10 ~ 5:00	기관별 토론
	(사회 : 김두섭 한양대학교 교수, 전 한국인구학회장)
5:00 ~ 5:20	공개질의 응답
5:20 ~ 5:30	폐회식
	폐회사 : 이승욱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인구학회장)

●토론 참가 기관 및 토론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기효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장
2) 국민연금관리공단 :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현대경제연구소 :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4)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기선 이민정책 연구실장
5) 교육개발원 : 최상덕 연구기획실장
6) 노동연구원 : 장지연 노사 /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7) 보험연구원 : 김대환 고령화 연구실장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장